

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 식량 공급'

농업인·도시민 2759명 설문조사

10명중 8명이 1위로 꼽아

미흡한 정책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32% '농업 종사 불만족'

국민들은 지난해 '안정적 식량 공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으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했던 농업·농촌 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꼽았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지난해 농업인 1259명, 도시민 1500명 등 27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농정포커스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국민 대부

분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인의 94%, 도시민의 85%가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안정적 식량 공급'(농업인 73.1%·도시민 81.5%)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은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다만 농업·농촌의 이런 공익적 기능에 공감하면서도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찬성 비율은 53%에 그쳤다.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으나, '매우 찬성한다'(14.5%)는 비율은 오히려 같은 기간 4.9%포인트 증가했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농업인들이 도시민보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농업인의 평균 점수(5.0점 만점)는 2.56점으로 45%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 중 가장 미

흡했던 과제는 농업인과 도시민 각 44.6%, 36.3%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농업정책에 역시 각각 70.1%, 74.5%로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고 답해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책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농업인들은 올해 정부가 '쌀 산업 체질 개선과 발작물 지급을 제고'(54.3%), '농촌 정부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53.3%)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시민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56.5%)와 '자연재해, 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55.5%)이라고 답했다.

특히, 농업인들은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 탓에 직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인의 32%는 농업종사에 '불만족'하다

고 응답했으며, 불만족 응답자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53.7%)를 꼽았다.

이외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5.5%), '타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4%),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2%) 순이었다.

또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49.5%)이 가장 많았고, '농업 생산비 증가'(48.4),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23.1%), '가뭄·홍수·태풍 피해'(22.5%) 등이었다.

농업인들이 낮은 소득과 일손부족 등을 이유로 만족도가 크게 낮다는 점에서 농산물 가격 및 농업인 소득 안정, 귀농·귀촌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석기(왼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정기총회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한 다짐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주부모임 지회

고향주부모임 전남지회 정기총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와 (사) 고향주부모임전남도지회(회장 김남생)는 지난 8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2019년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주요사업 보고와 결산 승인 등을 비롯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우수 조직인 담양 금성농협 주부대학동창회와 해남 군지부에 대한 시상식 등도 함께 진행됐다.

이밖에 (사) 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는 올해도 '깨끗한마을만들기'와 '농촌체험관광' 등을 통해 '전남 행복시대만들기'를 실천, 밑반찬 봉사활동과 목욕봉사 등도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농협은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홍보를 위한 판소리와 마당극을 열고 농협 조합장 선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세계 식량가격 새해 들어 오름세...유제품·설탕이 주도

1월, 5개 품목 전월비 1.8% 상승

유제품 7.2 탈지분유 16.5% 급등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를 이어가던 세계 식량 가격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61.8포인트)보다 1.8% 오른 164.8포인트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란 FAO가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매달 발표

하는 지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지난해 12월 주춤더니 지난달에는 반등했다"며 "유제품·유지류·설탕 가격이 상승했고, 곡물·육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제품은 전월 170.0포인트보다 7.2% 상승한 182.1포인트를 기록했다. 품목 중 탈지분유 가격은 전월보다 16.5% 급등했다.

농식품부는 "유제품 가격은 지난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마치고 모든 유제품 가격이 상승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소폭 상회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유지류는 전월 125.8포인트보다 4.3% 오른

131.2포인트, 설탕은 전월 179.6포인트보다 1.3% 상승한 181.9포인트를 각각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설탕 가격 상승에는 브라질 해알와 강세가 큰 영향을 끼쳤다"며 "해알와 강세로 수출가가 올라 브라질산 설탕의 세계 시장 유입이 제한됐다."

대신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를 바이오에탄올 재료로 전환했고, 때마침 국제 원유가격도 올라 이 같은 전환이 촉진됐다"고 설명했다.

대신 곡물과 육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 정부 설탕 사재기로 집계 기간 미국의 공식 자료가 없어 미국의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아래서 지표가 산출됐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전망

달러 강세에 미·중 무역갈등 다시 부각

코스피 추가적인 조정국면 불가피

수소차·2차전지 등 코스닥에 관심을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미국증시가 상승 전환한 것은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시장친화적인 태도변화와 4분기 기업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고 무엇보다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던 미·중 무역분쟁 실무협상이 진행되면서 오는 3월 관세부과 이전 타결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설날 연휴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졌지만 지난주 후반 EU집행위가 올해 유로존GDP성장률을 1.9%에서 1.3%로 하향조정하면서 유럽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로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이 11일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시장은 온통 미·중 무역협상에 집중됐고 중국산 무선 통신장비의 미국 통신망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또 최근 5주간 저점대비 나스닥 지수는 19%, 다우산업지수는 17% 상승하면서 단기급반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 상황이다.

필자가 올해 첫 번째 본 코너에서 '대부분 증권사가 1월 국내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모두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금리 동결가능성에 따른 이머징국가 유동성공급 가능성으로 시장반등을 예상했고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2222포인트까지 반등했다.

이제 증권사들은 바닥확인 후 추가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스피지수는 고점(2607포인트)대비 623포인트(23.8%) 하락후 238포인트(38.7%) 반등했다. 현재시장을 강세장 보다는 약세국면이라고 본다면 단기 반등 폭은 시장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이런 반등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달러약세가 진행되면서 미국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IT업종과 같이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IT업종에 4조 7000억원이 넘는 외국인순매수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유동성 공급효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월 미국 FOMC 이후 강하진 않지만 달러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지 어려운 상황으로 코스피지수는 추가적인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발언이 있었지만 미·중 고위급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관세유예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으로 극단적인 사태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지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변주는 외국인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며 반등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시장 반등을 기대해 본다. 지난주 목요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1648억원)과 기관(525억원)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금액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시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실적 발표 시즌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만 이미 시장기대치가 매우 낮아져있고 코스닥 수급에 영향을 큰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잔고 금액도 시가총액대비 낮은 수준으로 물량부담도 완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2월증시는 지수상승보다는 종목별 순환매를 예상하며 수소차, 2차전지, 미디어, 헬스케어 등 코스닥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농협중앙회 종합경영평가

농협 광주지역본부 전국 1위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농협 중앙회가 실시하는 '2018년 종합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 광주본부는 전국 광역시 및 지역본부장 종합경영평가에서 각각 전국 1위를 달성, 종합경영 최우수 달성패와 우수경영자상을 수상했다. 농업인의 다양한 실익증진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협의 지속적인 성장, 농축산물 판매 증대,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브랜드대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프리미엄브랜드대상
프리미엄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구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전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다른 욕구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